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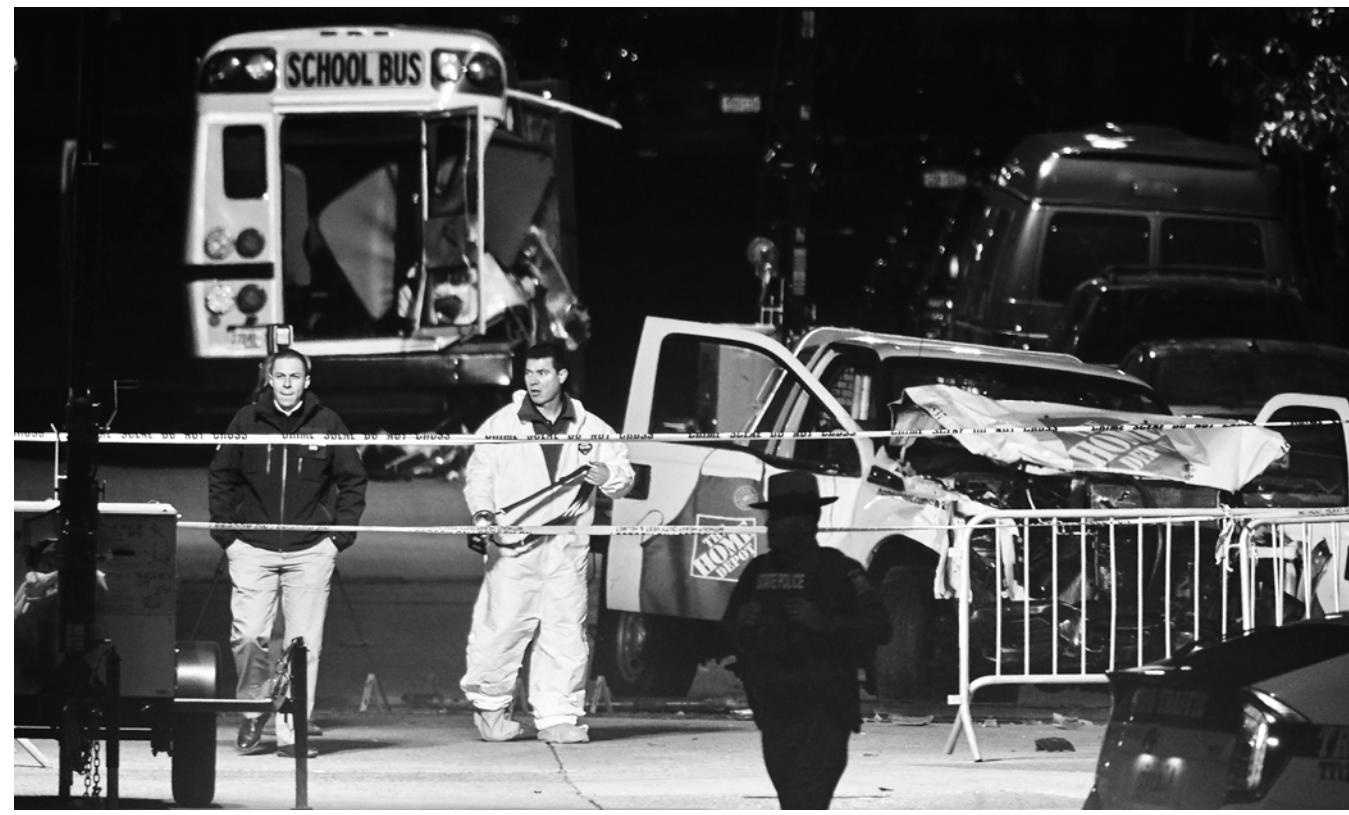
뉴욕 '핼러윈 악몽' 트럭테러 최소 8명 사망

맨해튼 자전거도로 돌진

IS 속주 주장 용의자 체포

트럼프 '테러 공격' 규정

뉴욕 핼러윈 트럭돌진 참사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월드트레이드센터 인근에서 트럭테러의 자전거 도로 돌진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이 현장에 출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소 8명이 숨진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이날 사건을 일으킨 트럭이 살 하게 부서진 모습.

/연합뉴스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지난 31일(현지시간) 오후 테러 가능성이 의심되는 차량 돌진사건으로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해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이날 사건은 미국 어린이들의 대표적인 축제일인 헐러윈데이에 발생한 대다 2001년 9·11 테러가 터쳤던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불과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심적 충격은 더한 모습이다.

계다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격이 일어난지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일이라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뉴욕 경찰이 29세 남성이라고 밝힌 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로어 맨해튼의 헐러윈데이 인근 도로에서 트럭테러를 물고 행진에 나섰다. 트럭을 맨해튼 남쪽으로 몰면서 도로변의 자전거 이용자들을 향해 돌진한 것이다.

표적이 된 자전거 이용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기 시작했고 도로는 순식간에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범인은 남쪽으로 20여 블록 떨어진 스타타이브센트 고등학교 인근의 캠버스 스트리트에서 스쿨버스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용의자는 페인트 불 건 등 모조 종기 2정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을 위협했다. 이후 경찰이 쏟은 종에 복부를 맞고 붙잡혔으며 현재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럭을 나오면서 아랍어로 '알라 후 아크바르(알라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후 현장에서는 흰색 전에 덮인 희생자의 주검과 완파된 자전거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당시 맨해튼에서는 헐러윈데이를 맞아 페인트 준비가 한창이었다. 범인이 헐러윈데이 인파를 겨냥했다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다. 사건 직후 인근 학교에서 쏟아져 나온 헐러윈 의상 차림의 학생들은 부모에게 달려가 안겼다. 화려한 분장으로 치장했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사건 발생 4시간가량 지나 이날 저녁에 정됐던 헐러윈 퍼레이드는 그대로 진행됐다. 화려한 수레와 밴드가 행진하는 모습을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봤다. 대신 삼엄한 경비가 뒤따랐다. 경찰은 중화기 분대

를 비롯해 추가 인력을 투입했고, 행진 루트를 따라 트럭을 보내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했다.

뉴욕경찰(NYPD)은 이번 사건을 테러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연방수사국(FBI)도 수사에 합류했다.

범인이 '알라신은 위대하다'고 외쳤고, 현장 트럭 안에서 'IS(이슬람국가)'의 이름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메모도 발견돼 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끝내로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외로운 늑대'에 의한 공격이라면서 단독범행 가능성은 시사했다.

/연합뉴스

EU 외면·오락가락 지도부...갈 곳 잊은 카탈루냐 독립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가 벨기에에서 행정부를 계속 이끌겠다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카탈루냐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직후 해임되고, 중앙정부 적절통치가 시작된 첫날 피신한 지도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도 관심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전 수반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EU 심장부에서 카탈루냐가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으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푸지데몬 전 수반의 유럽에



서 우호세력을 결집하기 어려울 것이며 브뤼셀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태가 고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더 타임스는 1일 푸지데몬 전 수반이 자신을 왜곡된 시스템의 정치적 희생양임을 부각하며 EU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푸지데몬 전 수반은 벨기에에서

EU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자신을 지지해줄 우호 세력을 찾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은 많지 않다.

벨기에 정부는 푸지데몬 전 수반에게 망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도 그가 브뤼셀로 오는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벨기에 북부 플라망어 분리주의 정당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유럽 안팎에서는 오히려 법적 타당성을 앞세운 스페인 정부의 이 같은 우위는 푸지데몬 전 수반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기 때문이기

도 하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전날 브뤼셀에서 자신이 여전히 카탈루냐 행정부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페인 중앙정부가 계획한 12월 지방자치의 회 조기선거에 참여하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독립을 선언해 그 나라 행정부 수반을 자처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치를 따르겠다는 모순된 입장에 지지자들은 고개를 가로 끊었다. 현재 푸지데몬 전 수반이 언제까지 벨기에에 체류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푸지데몬 전 수반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다음달 예정된 조기 선거에 종력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작가레지던스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3가 업무시설

경매물건



토지 480평
건물 1503평
감정가 103억
최저가 76억

【법원 경매/공매】

토지

- ▶ 담양군 응면 응자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접 입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 ▶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 ▶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바로위 도로접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 ▶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임야 파도리사무소인근 도로접 토지 18452평 감정가 140,000,000 최저가 140,000,000

공장

-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336,000,000

일반물건

- ▶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균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균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 ▶ 서구 마륵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 ▶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 ▶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9억1천만원 조정가
- ▶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 ▶ 장성군 진월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접 토지 200평 매매가 1억4천평
- ▶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
- ▶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원
-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한중 북핵 6자회담 대표 소통 강화키로"

중국 외교부는 1일 '북핵 6자회담 한중 수석대표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31일 베이징(北京)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했다면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 정치·외교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모색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았다. 양측은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 협의는 양국의 신임 수석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부장은 지난달, 쿵쉬안유 부장조리는 8월 초를 전후해 각각 수석대표에 임명됐다.

앞서 지난달 18~20일 서울에서는 이 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주국장 등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양자 및 3자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연합뉴스

중국 언론 '사드 한·중 합의' 칭찬 일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간 공동결의문이 지난 31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합의는 세계가 주목하고 양국 모두에 이의를 가져다준 결정이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이 1일 긴급하고 나섰다.

사드 불가만을 강한 어조로 외쳐오던 중국 매체들이 한중 양국 공동 발표를 계기로 태도를 확 바꿨다.

인민일보는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성의·호혜·포옹)과 선린외교는 중국의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지도원칙"이라며 "중국은 주변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양측의 중대 이익과 우려에 대한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맺는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국·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타임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리는 한중 양국의 사드 갈등 분합을 1면 주요 기사로 다루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중한 양국이 사드 먹구름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정했다'라는 제목의 톱기사에서 '양국간 사드 문제화에 대한 외신 반응과 논평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도 '중한 관계가 정상궤도에 돌아갔다'는 톱기사를 통해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증진할 준비가 됐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중국 해상 진출에 맞서는 미·일·인·호

4국 전략대화 추진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는 '4국 전략대화' 체제 구축 문제가 금부상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4국 전략대화 구축을 위한 공식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미국과 인도, 호주가 잇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논의가 급물살을 틀 조짐이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이들 4개 나라 간 외교 및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되살리기 문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일 보도했다.

이들 4국 대화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도로 2007년부터 추진됐고, 당시 존 하워드 호주 총리도 적극 동조했다. 하지만 하워드 후임인 케빈 러드 총리는 대중 관계를 우려해 발을 빼고 결국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 같은 논의는 국제적인 반발에 아랑곳 없이 인공섬을 건설해 해상 통제를 강화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세력권 확대에 속도를 내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숍 총리는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및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과 4자 회담 정례화 및 인도 참여 독려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례 공식회담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는 조심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